

‘우리가 만든 발레 작품 한번 보실래요’

무대 위에서 춤으로 관객들을 감동시켰던 발레리나와 발레리노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안무가로 변신했다.



# ‘5인의 춤꾼’

## 발레 안무에 빠지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 중견 단원 5명은 오는 3월 27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던 발레 페스티벌’에서 자신들의 개성이 담긴 ‘다섯 빛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시립무용단 중견 단원들 내달 27일 ‘모던 발레 페스티벌’로 데뷔 자신만의 ‘개성 담기’ 구슬땀

이날 선보인 작품들이 완성작은 아닌더라도 조금 어설피면 면도 있었지만 단원들은 긴장하면서도 뿌듯해했다. 모두 배태랑 무용수들이었지만 사실, 처음 이번 무대를 제안받았을 때는 부담이 많았다.

▲오는 3월 자신들이 안무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광주시립무용단원들과 김유미 단장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김정희·김유미(단장·박선희·이국희·공병태·송성호(사진 왼쪽부터)씨.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2009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맛벌이 가장들 소재로 우리 삶을 들여다본 ‘손톱 밑의 가시’를 무대에 올린다. ‘백조의 호수’ 등에서 오랫동안 주역을 도맡았던 박선희씨는 안무가로서의 첫 데뷔작으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자유롭게 표현한 ‘무아호’를 선보인다.

이국희씨는 고난 속에서도 꿈꾸는 희망의 이야기를 몸짓으로 풀어낸 ‘부활 프로젝트 2009’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참 안무가들이 힘들어했던 점은 무엇일까. 박 씨는 ‘춤을 오래 봤기 때문에 동작을 만들어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벗어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클래식 발레의 정형화된 동작과 달리 모던발레에서는 안 해본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였다. 또 작품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하는 과정은 단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안무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원들에게 많은 공부가 됐다. 무용수로서 테크닉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무가에 도전하면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선도 배우기 됐고, 다른 단원들의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배들의 색다른 도전은 후배 단원들에게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열정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했다.

안무전을 제안한 김유미 단장은 “단원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작품을 준비해 흡족하다”며 “중견단원들은 무용단 뿐 아니라 지역 무용계의 중추 역할을 해나갈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무대 준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비엔날레재단도 감원 솔렁

## ‘신정아 파문’ 조직 축소 이어 또 구조조정 ‘가득이나 일손 부족 한 데...’ 재단 뒤숭숭

구조조정을 앞두고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솔렁하고 있다. ‘신정아 가짜 박사 파문’ 등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된데다, 추가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회 기간에 맞춘 계약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18일 “이사회를 통해 구조조정 방침이 결정돼 최근 내부 절차를 거쳐 2~3명을 줄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누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지난해 27명에서 17명(정책연구실 포함)으로 줄인 뒤,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16명으로 추가 감원했다.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직원수는 13~14명선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감원 대상자들의 명단이 적힌 ‘살생부’가 돌고 있는 등 재단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최소 인력으로 일하고 있는데 추가 감원을 한다는 것은 재단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정인씨〉

## 순천이 낳은 한국 대표 소설가 서정인·김승옥 문학혼 기린다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모교 교정에 문학비 건립

순천 출신 소설가 서정인, 김승옥 씨의 문학비가 모교인 순천고 교정에 세워진다.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종영)는 “순천중·고 출신인 서정인 씨와 김승옥 씨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이들의 문학비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학비에 새겨질 두 사람의 대표작을 고르고 있다. 서정인은 1936년 순천 출생으로 순천중(11회), 순천고(4회),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씨는 1962년 ‘사상계’의 신인작품 공모에 단편소설 ‘후송’이 당선돼 문坛히 알려진 두 사람의 대표작 일부 문구가 뒷면에는 연보가 새겨져 있어 현재 이렇듯 전 문화부 장관이



〈김승옥씨〉

‘무진기행’으로 잘 알려진 김승옥은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순천중(16회), 순천고(9회)를 졸업했다. 김 씨는 서울대 불문학과 재학 중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생명연습’이 당선돼 등단한 이후 ‘서울 1964년 겨울’ ‘환상수집’, ‘서울의 달빛 0장’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제막식은 4월 26일 순천고 본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동부취재본부=김종익기자 ejkim@

## 로고스챔버 정기 연주회

23일 광주문화회관



로고스챔버 오케스트라 6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창훈(사진)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예술 끝나무릎이 참여하는 협주곡의 밤으로 꾸며진다. 출연자는 김은민(본초조 5년), 김수빈(광주유리중 3년), 류진서(만호초 5년), 김수민(수피아여고 3년), 정다아(전남대 1년)씨다. 연주 대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1악장’,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2번 D장조 1악장’,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C장조 1악장’, 비탈리의 ‘사르느 G단조’ 등이다. 문의 010-3640-742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달리는 사람들’

20일까지 나인갤러리



나인갤러리는 20일까지 신춘 기획 ‘달리는 사람들’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이훈홍, 정광주, 권영호, 최재영, 고근호, 손봉재, 이이남, 김숙진, 이매리, 박수만, 김화영, 김상연, 주홍, 주대희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최재영씨는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가린 친친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joke’를, 김숙진씨는 대지를 뚫고 나오는 무사의 역동적인 상체를 형상화한 ‘삼족오의 비상’을 각각 선보인다. 또 김화영씨는 은과 철로 등을 재료로 만든 주얼리 작품 ‘햇살 좋은 날’을 전시하고, 박영규씨는 손뭉치가 모양의 끈총을 형상화한 ‘끝없는 여행’을 출품했다. 문의 062-292-292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린던약국사거리 ☎1544-0600

엔터 시네마 홍성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동 (상무영입대 아파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하미 시네마 진다후문 하이마트점 ☎267-7777

제일 시네마 홍성로 37가 ARS 전화예약 227-1900

